

8강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요 9)

오늘의 포인트

-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 이해
-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관점에서 자신의 삶과 세상을 바라보기
- 우리는 맹인인가, 보는 사람인가?
- 거듭남의 은혜 이해

이 표적에 나타난 몇 가지 관점

- 제자들의 질문

(요 9:2)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님의 대답

관점1: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일은 없다.

(요 9:3)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 이 맹인은 38년된 병자의 경우와 다르다(요 5:14).

관점2: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곧 끝난다.

(요 9:4) 때가 아직 낮이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 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 시간의 긴박성:
 - 시간은 그 ‘때’를 향해서 가고 있다.
 - ‘밤’은 영적 의미로 주님께서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때를 가리킬 수 있다.
 - 주님께서는 그 때가 오기 전까지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일을 감당하신다.
- ‘나와 우리’:
 -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당신 자신과 제자들을 하나로 연결시키신다.
 - 나와 너희가 주어진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

관점3: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다.

- 단순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의미, 즉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을 주목해야 한다.
- 고난도 표적이 될 수 있다!

문맥

- “나는 세상의 빛이다”(8:12)라고 하신 주님의 선언의 연장선에 있는 표적(9:5).
(요 9:5)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 요한복음 저술의 목적(요 20:30~31),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여 생명을 얻게 하려는 목적의 빛에서 해석해야 하는 표적

표적이 보여주는 ‘거듭남과 구원에 관한 몇 가지 진실’

두 종류 인간: 자기가 맹인인 줄 아는 자와 모르는 자(39)

(요 9:39)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사람은 날 때부터(태생적) 맹인이다!
- 그러므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식별하지 못한다.

거듭남은 맹인이 눈을 떠서 보는 일이며, 주님께서 시작하시는 일이다(1).

(요 9:1)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을 보신지라

거듭남은 전적인 변화다.(8~9)

(요 9:8~9)

8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걸인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9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

니

- 거듭남은 내가 믿기로 결심하는 사건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이다.
- 거듭남은 인간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지는 일이다.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린다(17,33,35~38).

(요 9:17)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요 9:33)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요 9:35~38)

35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36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37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38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거듭난 사람은 핍박을 받는다(34).

(요 9:34)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를 예배한다(38).

(요 9:39)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그리스도는 분열을 가져오신다(39).

(요 9:39)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치유 방식의 독특성

[질문] 왜 주님은 말씀으로 치유하지 않으시고, 진흙을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게 하시는 방식으로 치유하셨는가?

유사한 치유 사건들

- (막 7:31~35) 갈릴리 지방에서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따로 데리고 가서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고 기도하심으로 치유해주신 사건.
- (막 8:22~26) 벳새다에서 맹인의 눈에 침을 뱉어 안수하셔서 고쳐주신 사건.

이 표적 사건

- 날때부터 맹인을 치유하신 사건: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셨다!
- ‘순종하면 고침을 받는다’는 말은 아니다.
-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을 명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실 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나아만 장군의 예(왕하 5)]

(왕하 5:10~12)

10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 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11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12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치유의 결과(35~38)

(요 9:35~36)

35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36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37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38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믿음과 경배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참된 믿음의 증거는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참된 경배와 순종이다.

치유 사건의 교훈: 아이러니

(요 9:39~41)

39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40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41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오늘의 적용

- 고난 속에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라.
 - 우리의 초점은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다.
-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관점에서 바라보기를 배우라.
 - 큰 그림을 보고 살라.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벗어나는가가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배울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 거듭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묵상하라.
 - 신자는 자신만만함으로 살지 않는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며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나침반 바이블
BIBLE